



최 종 보 고 회

RaonAtti 13th YANGONY

Contents

- 01/ 소개
- 02/ 목표
- 03/ 활동
- 04/ 생활
- 05/ 남은 고민들
- 06/ 개인소감



01. INTRODUCTION

01

INTRO- DUCTION

Introduce 'YANGON YMCA'

미얀마는 이제 막 두 번째 기수가 파견된 국가이다. 라온아띠 팀원들은 법적 제한으로 양곤 YMCA가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양곤 YMCA는 12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100여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두개의 건물은 각각 사무실과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 중이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무료 이동 클리닉, 유치원 등 시민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01

INTRO- DUCTION

Introduce STAFF

양곤 YMCA는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사무총장 닥터 따난과 라운아띠 현지 코디네이터 산드라, 그리고 우윈토, 우띐이 아저씨와 유스인 솔리와 동반자 뽀뽀이 주로 라운아띠를 맡고 있다.



U Thin in

약 60세

초기에는 마 오끌라바, 쉘비따를 같이 다니셨던 분으로 4,5월에 더위로 마 오끌라바에서 빠지시고 쉘비따만을 같이 가게 되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려 하시며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높으시다. 자주 하시는 말은 '미얀마에 왔으면 미얀마어를 써야지' 이다.



U Win Tou

약 60세

활동 초기에 아띠들과 흘랑따야를 동행하신 분으로, 더위로 인해 한 번 쓰러지신 후 Y유스들과 교대하셨다. 매일 아침 로비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시며 인자하신 웃음으로 영자 신문을 건네주신다.

01

INTRO- DUCTION

Introduce STAFF

초기에는 엘렉스와 뽀누가, 중반 이후로 솔리와 뽀누가 아띠들과 동행했다.

그 외에도 늘 우리들의 밥을 가져다 주시는 바부지 아저씨, 사이트를 갔다 올때마다 Y정문에서 '다녀왔어?' 라고 반겨주시는 텔 루, 그리고 카운터를 담당하는 뮤쑈, 민민포 등 여러 직원들이 있다.



Aalex

19세

활동 초기에는 우리와 같이 다녔던 청년으로 웃을 때 빛나는 흰 이가 매력 포인트. 볼 때 마다 환하게 웃어주며 마 오글라바 널서리 옆에 있는 집에 그의 가족들이 있다.



SAW LAY

23세

언제나 지치지 않는 활기와 웃음으로 피로에 지친 아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솔리! 끊임없이 장난을 치다가도, 비가 오면 자신의 우비를 건네주는 착하고 착한 순수 미얀마 청년이다.



PAN NU

20세

더운 미얀마 날씨에도 지치지 않는 볼록 미모를 간직한 뽀뽀. 시종일관 먹을 것을 찾아 나서며 아띠들의 간식 전도사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영어와 미얀마어, '미쳤어?' 정도의 한국어에 능통하다.



02. Vision

02

VISION

VISION

라온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얀마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 안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간다. 둘째, 그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셋째, 그럼으로써 그들과 친구가 되려 노력한다.





03. Activity

03

ACTIVITY

변화

12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현지 상황

기후

- 이전 기수인 12기는 10월부터 2월까지 우기 말에서 건기까지 활동하였으나 상반기 기수는 3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에서 우기까지 활동함. 높은 평균기온과 5월 말부터 날마다 내리기 시작한 비는 활동방향에 큰 영향을 끼침.

상황

- 유치원을 제외한 미얀마의 정부학교는 3월부터 5월까지 방학에 들어가 쉼베따에서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 했으며, 흘랑따야, 쉼베따 아티스쿨의 경우 새로운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아이들을 모아야 했음.



전반적 목표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가능성을 찾고, 최대한 12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03

ACTIVITY

Hlaing thar yar _ Nursery

흘랑따야는 양곤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이며 널서리가 위치한 곳은 정부의 토지정책으로 밀려난 이주민이 모여 형성한 마을이다. 널서리에는 4명의 여선생님들과 약 70여 명의 아이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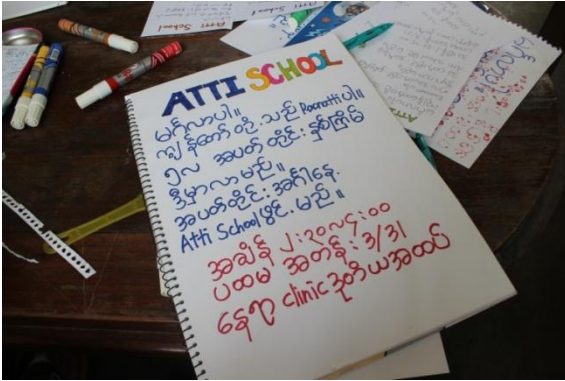
활동목적: 널서리 보조 활동 및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널서리 식구들 및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활동내용: 동요 및 율동, 모자이크, 꽃 접기, 도형 점선 그리기, 과일 색칠하기, 풍선 동극, 체조, 수업 보조, 어버이날 카네이션 접기, 페이스 페인팅 등 + 동화책

03

ACTIVITY

Hlaing thar yar _ Atti School

학교가 방학에 들어감으로써 12기가 운영하던 아티스쿨은 잠정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아이들을 모집해야 했으며, 기존 아티스쿨 아이들도 몇 있다.



활동목적 : 12기의 랑따야 활동이었던 아티스쿨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아이들을 모아 한국어 수업과 함께 다양한 예체능 활동 함께 하기

활동내용 : 한국어 수업, 어버이날 카네이션 접기, 모자이크 , 미얀마 한국 양국기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03 ACTIVITY

North Okkalapa

마 오끌라바(가지제)는 시외버스터미널인 아웅 밍글라, 양곤 공항 등 주요 시설과의 중심부(거리상)에 위치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가지제에 있는 마을은 주로 카렌족들이 많이 모여 산다. 널서리에는 여선 생님 4명과 아이들 약 40명이 있다.



활동목적 : 널서리 보조 활동 및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널서리 식구들 및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활동내용 : 동요 및 율동, 모자이크, 색종이 접기, 여러 동물 및 도형 색칠하기, 동화책 만들어 주기 및 읽기, 체조 등

03 ACTIVITY

Shwe pyi thar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이 자리를 옮겨 형성한 마을이다. 우리가 활동하는 곳은 사찰 내에 초등학교로, 라인 트럭의 종점에 해당한다. 사찰학교에는 5명의 여선생님과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방학이었던 이번 기수에서는 아티스쿨을 진행했다.

※ 가끔씩 마을 아이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나타남.



활동목적 : 학교와 마을 환경정리 및 쉐삐따 사찰학교 주변 아이들과 친해지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활동내용 : 한국어 교육, 딱지 치기, 수건 돌리기,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과 자신의 집 주변 둘러보기, 사찰 학교 주변 환경정리

03 ACTIVITY

Yangon YMCA – Nursery

금요일 휴일을 요구함과 동시에 5월 첫째 주부터 추가된 사이트. 양곤 YMCA 내에 위치하고 있다.



활동목적: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하여 활동 진행하기, 양곤YMCA 내 직원들과 아이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기
활동내용: 동요 및 율동, 모자이크, 색종이 접기, 동화책 만들어 주기 및 읽기, 여러 동물 및 도형 색칠하기

03 ACTIVITY

별라웅 학교

소수 민족인 별라웅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처음에는 집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아이가 3명 밖에 없었지만 Dr. 따난의 노력으로 현재 선생님 한 분과 약 35명의 아이들이 있다.



활동목적 : 넬서리 보조 활동 및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넬서리 식구들 및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활동내용 : 동요 및 율동, 모자이크, 색종이 접기, 여러 동물 및 도형 색칠하기, 체조 등

03 ACTIVITY

Yangon YMCA – Atti Club

아띠클럽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이다.
기존 멤버 1명을 제외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다시 형성되었다.(약 4~5명)



활동목적 : 12기의 아띠클럽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기본반과 심화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미얀마와 한국의 청년교류를 통해 문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내용 : 문화 교류, 한국 Expo, 세꼬란, 민속촌, 분반을 하여 기본반은 대화문, 심화반은 주제별 토론(취업, 문화, 취미)

03 ACTIVITY

한국어 학당

마 오끌라바 쉼도 파고다 근처의 한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 선생님 한 분과 학생 약 40여 명이 모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7월 말에 추가된 활동으로, 한국인 선생님이 없어 학생들의 발음 공부에 한계가 있다는 아띠클럽 멤버인 스마일과 최고의 요청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목적 : 원어민 발음이 듣고 싶은 청년들에게 발음교정과 미얀마 청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내용 : 한국어 대화문 함께 읽고 발음 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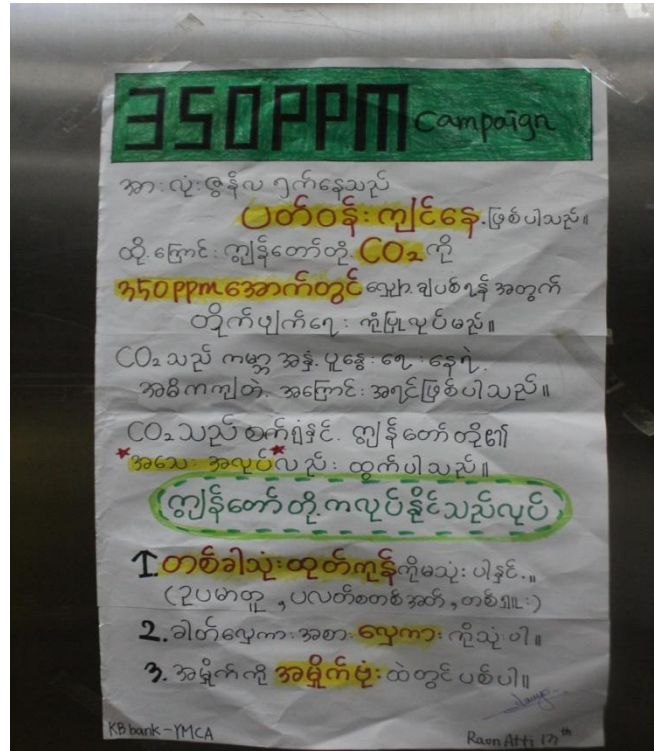
03 ACTIVITY

350PPM

마을과 거리에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그리고 양곤Y의 스텝조차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상황임을 분석하여

첫째, 양곤 Y 유스들을 중심으로 세계 환경의 날과 350ppm을 알린다.

둘째, 일상 속 행동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수도 보존될 수도 있음을 알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350PPM SNS RELAY

Raonetti 13th YANGONY

Every fifth of June is 'World Environment Day'. So we'll do 350ppm campaign to reduce CO2 which is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under 350ppm. CO2 can be produced in not only factory but also our daily life such as using elevator, phone, disposable products. Would you join our campaign?

OUR ACTION PLAN

1. Don't use disposable products. (chopsticks, plastic bags, tissue)
If you use one tissue, occur 6g CO2
2. Use stairs instead of elevator.
If you go up and down using elevator, occur average 65g CO2
3. Throw trash into a trashcan.

HOW TO JOIN 350PPM RELAY

1. Take a picture of one of above action.
2. Upload a post (your action picture with this page).
3. Tag 3 friends who join 350ppm RELAY.

350PPM SNS 릴레이

Raonetti 13th YANGONY

매년 6월 5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각하게 들어온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이산화탄소(CO2)는 공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도 발생합니다. 350PPM 캠페인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 농도인 350PPM 이하로 낮추자는 운동입니다. 당산도 환경의 날을 맞아 이산화탄소 줄이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액션 플랜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젓가락, 비닐봉지, 휴지 등)
휴지 하나를 사용하면 6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2.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사용할 때 평균 65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3.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참여 방법

1. 위의 액션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샷을 찍는다.
2. 이 앱자본과 함께 인증샷을 업로드 한다.
3. 350ppm 릴레이를 이어갈 친구 3명을 태그한다.

진행방법 : Y청년들의 쓰레기 투기와 휴대폰 사용량을 줄이자는 의도와 1, 2층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스텝들에게 계단을 이용해보자고 권유하는 홍보포스터 제작 및 Facebook 릴레이 진행

피드백 : 현지인들이 아이스버킷챌린지의 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오프라인 홍보도 소홀했다. 중간평가로 인한 뻘뻘한 스케줄과 홈스테이 계획으로 열심히 준비하지 못해 아쉽다.



04.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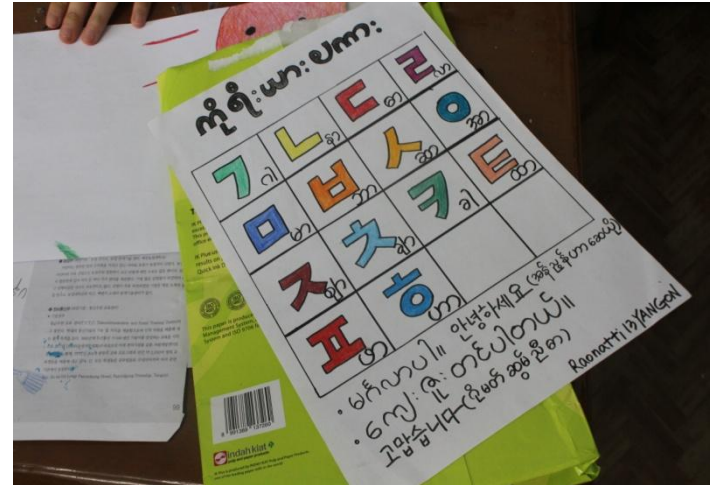
숙소 및 교통

라운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 다섯명은 양곤 YMCA 게스트하우스 7층에 머물고 있으며, 교통은 현지 대중교통인 마타타(버스)와 라인카를 이용해 사이트에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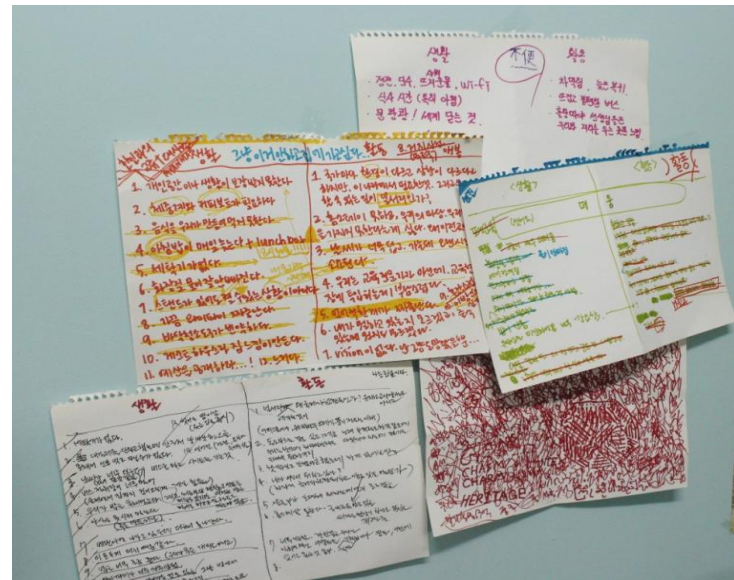
다른 나눔

하루를 반성 및 정리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



팀 프로그램

인생곡선, 촛불토크, 카드게임, 이야기 나눔(전부 술을 동반함), 세월호 추모(04.16)



음식 나눔 (Sharing Happy)

핀잔 기간 동안 양곤 YMCA 스태프 30여명을 위해 파전, 고구마 맛탕, 제육볶음, 된장찌개 등의 한국 음식을 요리함



미얀마어 수업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양곤 YMCA 원장 선생님이신 티쳐 에띠께서 미얀마어를 가르쳐 주신다.



문화 체험

홈비지팅 - 현지 간사인 산드라의 집 방문



문화 체험

띤잔 페스티벌(04.11~04.21)



문화 체험

산드라 조카의 결혼식



문화 체험

보족 아웅산 시장



문화 체험

쉐다곤 / 솔레파고다 / 마하재디 파고다



문화 체험

19번가 세꼬랑 (19th street)



문화 체험

인레 호수(파웅도 파고다, 은 공예 공방, 실크 공방)
꺄로(쉐 우민 파고다)



문화 체험

민속촌(National Village)



문화 체험

민카(아이진 외할머니 댁, 구멍가게, 톨라지 청년 집)
꼰로(시장 구경, 축구 경기),
빨라웅 마을 나들이(레웨 선생님 댁, 학교 선생님 집) + Home Stay



문화 체험

마이크로 파이낸스- Dala (YMCA 앞의 강 건너에 있는 소도시)
Y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로, 20만짜 상당의 소액을 빌려주며 양곤Y의 청년들이 담당한다. 총 45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에 격주로 마을을 방문한다.



문화 체험

버간 여행(부 페야, 뽀빠 산, 쉐 산도 파고다, 아난다 파고다, 냥 우 시장 etc.)





05. 그리고 남은 고민들

활동 후 남은 고민들 – 양곤Y 피드백

1

사이트 수가 3곳이 넘어 한곳에 집중할 수 없고, 양곤Y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함.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이 날씨에 치중되어 있다.

2

활동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과 도시락이 늦게 온다.

3

산드라와 의사소통을 따라다니는 Y스텝을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ex. Home stay)

4

4, 5월에 극도로 더운 날씨로 인해 휴식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
(41°C~42°C)

활동 후 남은 고민들 – 자체 피드백

1

사이트의 개수가 많고, 한 마을에 머물 수가 없어 마을 위주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음

2

넬서리 활동과 아띠스쿨에 집중하다 보니 그 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에 소홀하였다.

3

우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활동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4

후반으로 갈수록 반복되는 일상과 활동에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쳐 활동에 대한 고민과 동기가 떨어짐.



06 . 개인소감

Jong's Voice





Sol's Voice



A's Voice



Kyu's Voice





Q & A



THANK YOU

RaonAtti 13th YANGONY